

2007 신행단체들의 화두는?

신행·단합은 기본, 봉사는 당연

불교계 신행단체들은 2007년 성향은 '신행은 기본, 봉사는 당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봉사의 중요성이 어느 해보다 부각된 만큼 올해는 친목과 신행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사와 나눔의 보살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공무원봉사회는 지난해 12월 초 저소득층 세대 및 독거노인을 위해 쌀과 김치를 전달했다. 2005년 5월 창립한 이래 성남시 공무원봉사회 백미와 금일봉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역시 백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에 나서는 대전시청불자회 회원들 역시 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이다. 8개조로 나뉜 한 주도 거름 없이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수발을 들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3월.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

2005년 3월 창립한 대구경북 108여성불자회는 매주 금요일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를 비롯해 청소년 시절 대구 등 불의 집은 수시로 드나들며 내 부모, 내 자식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청소와 빨래 봉사를 한다.

대구경북 108여성불자회의 목표는 여성불교 회관 설립이다. 여성불교회관이 설립될 때까지 큰 발원을 세운 채 내 주변을 살피는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목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1월 26일 태국, 6월 몽골 등 해외의료봉사에 좀더 힘을 보탬 계획이다. 4월에는 구례 화엄사에서 의료봉사를 겸한 수련 회도 마련한다.

약사여래의 손길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선재의료회는 지난해 12월 봉은사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1999년부터 300회 1만 명 이상의 이웃들에게 약사여래의 보살행을 실천한 것과 강원도 수해복구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불교 및 봉은사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선재의료회는 서울역

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할 것이 기대된다. **일산병원 불자회**는 병원 내에서 운영되는 불교 대학에서 교리 공부를 하며 신심을 다지는 한편, 인근 소외계층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전문의들은 중앙신도회와 함께하는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를 통해 어르신 개안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성북승우사우소불자회는 봉사모임을 만들어 2006년 1월부터 매월 2차례 선재동자원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탑골공원 등에서 무료 투약 봉사 등을 해 오던 불자약사보리회는 기존 봉사 외에도 올해 승가대 학인스님 장학금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재양성 만큼 중요한 봉사는 없다는 생각이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단체 위상 세우기에 나선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와 청소년 포교 원력을 세운 **전국교사 불자연합회**의 활동도 주목된다.

공불원이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대표 신행단체로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공불원의 단위조직이 213개인데도 불구하고 전남북 지역에는 단위불자회가 없는 곳이 많다.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17만 1불자회 갖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 법회도 좀더 재미있고 활발하게 운영해 포교 수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청소년 포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리강좌를 마련할 생각이다.



경찰청불교회와 경찰병원불교회는 합동 의료봉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일 남양주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무료진료에 나선 모습.

지역사회에 '힘' 보태며 포교...조직강화도 병렬런 해외봉사·약사회 장학사업 '기대'

봉은사 석왕사 등지에서 회원들이 조를 짜 매주 내과 치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찾는 만인의 병원인만큼 올해도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무료진료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불교회는 지난해 경찰병원불교회와 합동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남양주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를 찾았는가 하면 충북청장청 불교회와 함께 마곡사에서 합동 의료봉사를 벌이기도 했다. 올해도 합동 의료봉사를 통해 전국 각지

고자 하는 일이 바로 대표 신행단체로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공불원의 단위조직이 213개인데도 불구하고 전남북 지역에는 단위불자회가 없는 곳이 많다.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17만 1불자회 갖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 법회도 좀더 재미있고 활발하게 운영해 포교 수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청소년 포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리강좌를 마련할 생각이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news.com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전 일주향 올리며 (상)

김민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일토록 맥물 웃을 입고서 찌푸려져 있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 자욱한 흠내음과 함께 소나기로 바뀌었습니다. 때 아닌 봄 기운처럼 메마른 대지에 나리는 단비는 모든 이로 하여금 참으로 환한 웃음과 기운이 나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전생의 일을 알려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라는 참으로 지극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절실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 자유로운 나비를 위해 고지라는 고통과 시련을 감내한다'는 말로써 나 자신을 위장한 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되는대로 살아왔습니다.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나비가 되기 전의 고지'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어떤데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도피라는 방패를 내세워 가지 않는 세월 탓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준 새롭게 변화시킨 세상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 온갖 탐욕에 찢어 허튼짓을 일삼고 이기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종래는 스스로를 닦는 것조차 망각한 채 지내다가 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제가 처한 현실의 원인을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세상 탓으로 떠넘길 뿐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오도한 채 오만을 펼친 저는 나에게 상처가 날 것이 두려워 남에게 먼저 상처를 주곤 했던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해하면 결국 그것이 곧 나의 상처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미루어 헤아리지 못했던 아둔함으로 중무장했던 것이죠.

그런 저에게 부처님의 고마운 복덕이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부처님은 무명에서 허덕이고 있던, 남에게 상처를 입히며 자신을 보호하려했던 어리석은 저에게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명의 끝없는 나락에 떨어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제 몸과 마음을 참회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부처님. 또 그 고결한 가르침을 만나게 된 인연복덕에 대한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봄은 어떻게 생겨 먹은 봄

이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 참회랍시고 아파하며 또 다른 번뇌 망상의 구름 속에 눈물짓고 있는 것일까요? 풀잎없이 고인하고 또 고이하며 하루하루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우주에 존망하시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대자대비 부처님에 마음 다해 돌아와 감사하며 감히 기원 올립니다.

세상 어느 부모든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한결 같으시겠지만 제게 어머니는 더욱 특별합니다. 이토록 어리석고 불효막심한 저를, 세상사람 모두 손가락질하며 냉대하여도 자식이라는 이유나만으로 그저 포근히 감싸주시는 어머니. 당시 스

스로 마음속 고통을 감내하며 이 못난 늙은 형어 고생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해주시는 어머니. 언젠가 절경에서 흰머리가 많아졌다는 저의 말에 오늘은 염색을 못하셔서 그렇다고 애써 웃음지으시던 어머니. 당신의 안위보다 이 못난 늙은 마음 아플까 싶어 다독여주시던 어머니.

지금쯤 절경을 마치고 돌아 가시면서 숲경정이 되어 버렸을 가슴 위로 눈물이 가득하실텐지요.

중생의 소망 따라 그 몸 누르시는 부처님. 어리석고 불효막심한 이 중생이 감히 두 손 모아 합장해 봅니다. 부디 이제는 더 이상의 힘은 일과 고난이 없이 평안해지시기를, 저 마음속 숲경정이 부처님 명호삼귀에 힘입어 녹아질 수 있기를, 일심으로 발원하며 눈물과 함께 어리석은 지난날을 회상해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부 경남의 제일 끝자락인 거창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도 생기고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갭깁 벽촌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궁벽한 시골이었습니다.

저의 집은 그래도 읍내에 있었기에 그나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다지 크진 않지만 농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읍내에서 조그만 의류업을 하셨지요. 그 영향으로 저의 어린 시절은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았습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부모님 어깨에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기도 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어둠과 밝음은 돌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셨던가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우리집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우등생'

중학교 입학 후 어두운 그림자가...

중학교 입학 후 어두운 그림자가...

울산시 공무원 불자회

자원봉사 우수동아리 선정

울산시 공무원 불자회가 2006년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평가 결과 우수 동아리에 선정됐다. 울산시가 2006년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한 결과 공무원 불자회가 남부소방서와 함께 우수 자원봉사 동아리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평가는 17개 동아리, 사업소 등에서 연인원 10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시설 등 24개 시설과 어려운 이웃 58세대에 대해 총 102회 4666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불자회 외에도 최우수 동아리에는 미나회, 장려에 온산소방서 중부소방서 등이 선정돼 50~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광진구청 불자회 창립

광진구청 불자회가 1월 11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새 걸음을 디뎠다. 창립준비를 꾸준히 해온 불자회는 지난해 11월 총회를 통해 김성래 광진구 능동 동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앞으로 광진구청 불자회는 정기법회, 전통사찰 순례법회, 기초교리 강좌 등을 통해 불심을 다질 계획이다.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닦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향상품에지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법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벨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벨트메타지와 원직의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벨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해 말날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운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술나노동지갑 여성용銀나노동지갑

옴마니반메흠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패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패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진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팔팔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당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지 않게 하는 팔팔상보병과만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銀나노 처리 까치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 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나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닦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기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닦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알도 모르는 험한세상 낚시,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면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